

# 내년 어울림학교 공모 나서

###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도내 총 147개 학교 운영 중 전주 개발지구 내 한해 작은학교·큰학교 공동학구 운영 읍지역→읍지역 이동 제한 풀어... 학생유입 방향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어울림학교 공모에 나섰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어울림학교는 총 147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3개교, 교육과정 협력형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 7개교 등이다. 도내 766개교 중 41.1%인 314개교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다. 이 가운데 299개교가 농어촌 소재 학교로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인 어울림학교 운영 확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광역형 어울림학교(시·군 간 공동통학구형)를 전면 시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 전주 개발지구 내에 한해 작은학교와 큰학교가 1:2로 공동학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대 학교에서 작은학교로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과대 학교의 학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유입 방향을 기존 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이동뿐만 아니라 읍지역에서 읍지역 학교로의 이동 제

한을 풀어 소재지별 학교 규모 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2025년 어울림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 어울림학교 선정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다시 찾는 농어촌학교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어울림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해 정서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일행이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와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서해 공해상 해상풍력 공동개발에 대한 의견을 심도 깊게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글로벌 인재양성·서해 공해상 해상풍력공동개발 논의

###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일행,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귀국전 고별 미팅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서해 공해상 해상풍력 공동개발에 대한 의견을 심도 깊게 나눴다. 이날 방문은 7월 10일 귀국 예정인 상하이밍 대사와의 귀국전 고별 미팅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국립군산대학교 강범식 자문교수, 우무칭 한국사범대학 대표가 동행했다.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방문단과 상하이밍 대사는 한국사범대학과 국립군산대학교의 인재양성 방안, 서해 공해상 해상풍력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고, 국립군산대학교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2 학생교

류 교육과정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2+2 학생교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우수 인재들을 새만금산업단지의 핵심산업 정주인력으로 양성하는 기반을 안착시키고 있다. 지국에서 2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국립군산대학교 3, 4학년 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업현장과 대학 교육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도입한 2+2 현장실습기반 기업체유연계 공유전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상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해 4년 6개월 동안 주한 중국대사직을 수

행하였고, 20년 이상 남북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어,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새만금환경경협단지 활성화와 양국 고등교육발전 및 학술·교육문화교류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4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한국사범대학은 중국 최고 신용등급의 첨단기술 국유기업으로, 2023년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새만금에 중국 기업으로는 첫 단독 투자를 했다. 2023년 국립군산대학교와 학생취업 및 사회공헌프로그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 중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전주대, LINC 3.0 친환경에너지 ICC 세미나 개최

###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대학·기업 간 소통·협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LINC 3.0 친환경에너지 ICC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규선 공과대학 학장, 강성수 탄소기술개발사업단장, 군장대 교수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ICC 세미나(1차)에서는 지스타 모빌리티 김종필 회장을 초청해 'The story of 수소저장합금과 전기자동차'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진행됐고, 수소저장합금과 수소 전기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9.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LINC 3.0 친환경에너지 ICC 세미나를 개최했다.

며 "2027년에는 약 2,300억 원의 시장 가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정호연 교수(산업공학과)는 "기후변화, 친환경에너지, 자율주행 기술 등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간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윤성철 아주자동차대학 겸임교수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의 특징과 산업의 현황 분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줘 부담없게 중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 분자공학실험실 고혜운·장준화·오민택씨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 연구 장려금 지원받아**



고혜운



장준화



오민택

전북대학교 분자공학실험실 고혜운·장준화·오민택 박사과정생(나노융합공학과, 지도교수 장광운)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 연구 장려금을 지원받게 됐다. 같은 연구실에서 3명의 연구원이 동시에 선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따르면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은 박사과정생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세 명의 박사과정생은 향후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장려금을 지원받아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고혜운 대학원생은 '토포케미컬 중합과 호스트-게스트 화학을 이용한 이방성 나노격자구조 제어'를, 장준화 대학원생은 '포로젠 및 광이성질화에 따른 고치원

나노구조 제어를 통한 다공성 화학 감지 스마트 분리막 개발'을, 오민택 대학원생은 '비등방성 스마트 엘라스토머의 고차원 구조제어를 통한 차세대 인공근육 개발과 응용'을 주제로 각각 독립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제에 선정된 고혜운 대학원생은 지금까지 총 15건의 SCI 논문을 발표했고, 장준화 대학원생은 13건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또 오민택 대학원생은 11건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경쟁력을 갖췄다. 고혜운·장준화·오민택 대학원생은 "이번 과제에 선정되기까지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해 준 장광운 지도교수와 대학 관계자 분들 그리고 분자공학실험실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해당 과제를 통해 연구에 매진한 향후 관련 분야의 세계적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정책 추진의 민주성 낙제점”

### 전교조 전북지부, 서거식 교육감 취임 2주년 중간평가 입장

전교조 전북지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거식 교육감 2주년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1~28일까지 전북 11개 교육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거식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민주적으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1.86 점으로 전체 15개 공통 문항 중 최저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들에게만 따로 질문한 8개 문항 중 최저점수를 받은 항목은 노동조합에 대한 서거식 교육감의 평가라고 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를 존중하며, 단

체 교섭·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1.7점으로 후회했다는 것. 가장 큰 이유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온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교조 단체협약 168개 조항의 일방적 만료 통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자체로 진행한 설문은 긍정평가는 70%에 육박하나 전북 11개 교육단체가 진행한 설문에서는 부정평가가 70%나 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설문 내용을 보면 두 설문 방향성이 다르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군장대 전북과학대와 공동성과 포럼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단장 박용균)은 지난 2일 라마다 군산호텔에서 군장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등과 공동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권 3개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과 포럼은 2023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운영되고 있다. 포럼을 통해 대학 간 실질적인 협업 성과 공유, 새로운 성과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전주비전대학교 박용균 혁신지원사업단장, 군장대학교 권은하 혁신지원사업단장, 전북과학대학교 유민정 혁신지원사업단장 등 전북권역 사업단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군장대학교는 '학생성공센터 시도형성(시차-도전-행동-성취) 운영 성과'를, 전북과학기술대학교는 '예비명장 양성을 위한 숙련 기술전수 운영사례'를, 전주비전대학교는 '창의융합 산학협력 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 후에는 △대학 간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율 토론을 벌여 각 대학의 사업에 개선된 성과를 도출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직원수련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 전북자치도교육청, 센터 소속 교육전문직 등 대상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직원수련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분청과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부터 장애인권 보호, 진로직업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성교육 및 장애인해교육, 현장체험학습,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연수와 교양문화연수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전문연수에서는 국가교육위원 회 성경선 교육연구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연속현 마음원한 심리상담사가 '특

수교사의 마음 건강 돌봄'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펼쳤다. 또 교양문화연수는 디지털 디스커 활동으로 이뤄졌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트레킹, 독서, 요가 등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의 시적인 진단평가부터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특수교육의 모든 것이 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앞으로도 연수와 워크숍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통일교육사업단 광주대 통일교육센터와 협약

원광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단장 김창호)과 광주대학교 통일교육센터(센터장 김경태)가 호남권 통일교육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원광대 김창호 통일교육사업단장, 이은희 부단장, 전철후 사무국장, 광주대 김경태 통일교육센터장, 최선우 경찰행정학과장, 박수양, 정보성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원광대에서 열렸으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호남권 통일교육 우수 모델 개발과 인재양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교육의 우수 모델·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추진 △대학생들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미래 통일시대의 창의적 인재 양성 △호남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